

# '문화 장벽' 그 너머, 예술로 담아낸 인간 언어

오는 10일까지 호랑가시나무창작소 입주작가 그룹전

## 韓·伊·인니 작가 7명 다양한 매체로 침묵의 순간 표현

이번 전시는 올해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자리로, 지난 9월 호랑가시나무창작소에 입주한 다양한 장르와 국적의 작가들이 서로의 뜻을 모아 선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갖는다.

전시에는 국내작가인 김민선·김성재·남민오·박지형과 함께 이탈리아의 클라리사 발다사리, 인도네시아 레가 아운디아 푸트리, 위모 암발라 비양까지 총 7명 작가가 참여한다. 작가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모국어 아닌 언어로 소통하면서 겪은 언어적·문화적 장벽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글리치(일시적 오류), 침묵의 순간을 예술로 표현한다.

클라리사 발다사리 작가는 하늘과 바다의 경계를 음파와 퍼포먼스로 표현, 영상으로 제작한 '땅과 바다가 만나는 하늘이 보이는 곳'을 선보인다. 물과 바람 사이 촬영된 비디오 오디오 트랙을 전부의 1초 단위로 세밀하게 분석해 행위예술가들과 인간의 언어로 변

환했다. 레가 아운디아 푸트리 작가는 게임의 한 종류인 '우아한 시체'를 차용해 창작한 협업 드로잉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입주작가들과의 '우아한 시체' 게임을 기반으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단절과 오해가 어떻게 무작위적인 조합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로 발전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위모 암발라 비양 작가는 일상적 요소와 역사적 사건을 결합해 사회적 통찰을 제시하는 '(2024년 10월) 시위자의 일기'를 선보인다. 이 작품은 작가가 호랑가시나무창작소와 광주에서 봤던 흔적이나 풍경이나 행동을 작품으로 표현한 것이다.

김민선 작가는 네덜란드에서 예술활동을 이어오던 중 자신이 느낀 '언어적 비동기화'의 경험을 바탕으로, 언어의 한계가 가져오는 불완전성을 작업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다. 전시에서는 동시통역의 불완전성과 지



박지형작 'Mealtime...Remorse'



위모 암발라 비양작 '(2024년 10월) 시위자의 일기'

연을 통해 현대예술의 다양성과 동시성의 한계를 탐구한 '(Im-)possibility of Listening and Speaking simultaneously'를 선보인다.

김성재 작가는 한국의 역사문화적 상황을 사진작업으로 연결 짓는다. 작가는 역사적 사건·현장이 남긴 흔적을 바탕으로 제작한 '경산에서'를 선보인다. 해당 작품은 작가의 '리의 얼굴' 시리즈 중 하나로, 한국의 역동적 인 사회 환경 속 존재하는 기억, 정체성, 소속감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남민오 작가의 비디오 연작 'Signal to Noise'는 '배회하는 사람들'을 키워드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하는 과정 (렌더링

프리뷰 캡처)을 수집하고 편집한 작품이다. 흐릿한 화면에 나타나는 빛은 본래 소음이며, 이 신호이자 소음인 빛들은 우연한 패턴을 만들고 사라진다.

박지형 작가는 인간의 내면과 관계성을 탐구하며,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체성과 감정 변화를 발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되돌아보는 'Mealtime'을 선보인다. 레지던시 기간 동안 깨진 식기를 활용한 결과물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 관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소통과 연결을 상기하는 작품이다. /최명진기자

'사실, 어떻게 말해야 하지, 그래서, 내 말은, 알다시피, 그게, 글썄' 일상 속 영어를 사용할 때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 잠시 머뭇거리는 순간 나오는 단어이다. 여기에 착안해 언어의 혼란과 일시적 오류를 예술적 시선으로 담아낸 특별한 전시가 마련됐다. 오는 10일까지 호랑가시나무창작소에서 열리는 하반기 입주작가 그룹전 'Actually, How to Say, So, I mean, You know, It's like, Well'이다.



클라리사 발다사리작 'When the sky seems to meet the land or the sea'

## 상상의 탄생

### 가운의 개념사상체



지구 온난화로 하루아침에, 찜통더위에서 가을로 깊이 들어왔다. 독서의 계절이라지만 쉬는 시간에 영화 보는 게 더 편한 일상이다. 책 한 권에서 시작된 위험한 거짓말! '언어의 발명'이라는 소설이 원작인 영화 '페르시아어 수업'은 실화를 바탕으로 쓰였다고 한다.

전쟁이 끝나면 테헤란에서 식당을 열 계획을 갖고 페르시아어 배우기를 원하는 독일군 장교, 살기 위해 페르시아어인이라고 거짓말을 한 유대인은 살아남기 위해 독일군 장교에게 가짜 페르시아어를 가르치고 날마다 '거짓 언어'를 만들어내야만 한다. 암기에 비대한 재주를 가진 주인공은 포로들의 명단에 있는 이름을 활용하여 일상의 낱말들을 만들어 내는데, 하루하루 긴장감 속에서 거짓으로 만들어낸 가짜 언어를 들키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는 내용이 정말 인상 깊다.

거짓말로 살아남은 주인공을 보며, 다른 종보다 호모 사피엔스가 세상을 정복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주효했다는 '유발 하리리' 말이 떠오른다. 그래서 예술이 등장한 걸까? 회화는 그리스 때부터 일루전(illusion)이었지만, 회화적 진실을 지속해 왔기에, 허상으로 끝나지 않는 감동을 갖고 있다. 그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질문하게 하는 게 어렵고, 질문하게 되면 상상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는 요즘 내 회화에서 벌어지는 모든 작품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구름은 구름이다'를 시작했지만 쉽지가 않다. 지금 심리 상태로 나라는 사람은 이거나? 저거나? 둘 중 하나의 그림을 원하지만, 대부분의 그림은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오락가락한다. 현실 세계에서 힘을 발휘하기에 현재 나는 어떤 '가상의 실제'를 믿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어쨌거나 거짓말을 잘 지어낸 것이 인류의 승리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살아오며 꽤 많은 일루



'구름-중간'

전(illusion)을 그려왔던 내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다. 결국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일치시키는 상상이 인생이고 예술이지 않을까?

<대인동에서 화가강운>

## 디카詩에 담긴 문화의 향기

광주디카시인협회, '디카詩 올림'展...8일까지 광주상무역

디카시에 담긴 문화예술의 향기를 느껴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오는 8일까지 광주 지하철 상무역에서 진행되는 광주디카시인협회의 '2024 시민과 함께하는 디카시의 올림' 전시다.

디카시는 사물이나 특정 대상을 발견한 시적 형상을 디지털카메라나 휴대폰으로 찍고, 그 느낌을 5행 이내로 짧게 서술한 시를 말한다.

언어예술이라는 기존 시의 카테고리를 영상과 문자의 멀티언어로 확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생활문학으로서의 디카시에 대한 폭넓은 인식 확산과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25명 회원의 30점 작품이 출품된다.



너와 나  
너는 푸르고  
나는 투명하다  
따로 또 같이  
스미지 않아도  
참 좋다  
-권준영

꽃피 내리는 봄날의 풍경과 푸르른 하늘, 가을 무렵 단풍잎이 낙하하는 모습, 맑은 하늘 아래 녹차밭 등 일상 속 소소하지만 아름다운 순간이 사진과 시구절로 담겨있다.

조현 광주디카시인협회장은 "생활문학으로서 보폭을 넓히고 있는 디카시의 다양한 면모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며 "누구나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디카시 작품이 더 많은 시민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 후끈한 열기! 시원한 샷~!

### 이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 파크골프

## 무료레슨

**전일파크골프**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6(전일상사 2층)    문의 062)368-5779 / 010-4645-5778